

격주간 점자소식지 '브레일 타임즈' 제679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신년사]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장애인계 뉴스

1.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된다
2. 하상장복, 시각장애인 전용휴대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3.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달라지는 것들
  - 1) 이르면 7월부터 행사자료 등에 '음성변환용 코드' 삽입
  - 2) 외국인 장애인도 장애인등록 가능
  - 3) 장애수당 지급 관리 강화된다
4.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취재암으로 시한부 선고받은 강영우 박사, 생애 마지막 편지 보내
5. 삼성, 시각장애인 안내견 총 149마리 분양
6.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수기에서 시각장애인 조영찬 씨 대상 수상

기획: 한시련 성명서-"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

독자마당: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하여! / 문광만(경기 시흥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2월 16일~12월 31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47)

## [신년사]

### 2012 임진년 신년인사

많이 힘들었던 2011년 신묘년이 지나가고 2012 임진년 새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25만 등록시각장애인과 그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지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한시련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쁜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경북지부 사태는 대법원에서까지 중앙회의 승리로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경북지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집단들은 중앙회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중앙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천지부 또한 발생하고 있어 지회장들을 중앙회의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별도 법인의 정관을 가지고 징계하였습니다.

부산지부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시의회가 합작하여 우리 부산지부와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을 괴롭히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우리 시각장애인들 스스로의 욕심과 어리석음에서 초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민원에 대한 수많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시련으로부터 제명 처리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 거의 모두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 법원에 재판을 제기하여 승사에 시달렸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많은 투서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시련은 단 한 건도 패소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승소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한시련이 집행해왔던 일들이 하나도 그릇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화합하고 양보하면서 조화와 타협의 운영을 하지 못한 부덕함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있는 최대선까지 양보를 하더라도 마지막 배수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운영방침이 있었기에 공금횡령이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과 같은 다수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발생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마도 한시련 업무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민원과 승사를 해결하는 데에 투입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그릇된 우리의 문화가 시정되기만을 기원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속에서도 지난 2011년 우리 한시련은 조금은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시정하였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화면해설방송의 의무화, 시각장애인스포츠 예산의 확보, 지회 지원, 점역교정사제도의 발전, 보행지도사 자격증 신설, 사회적 기업 설립, 골볼의 세계대회 우승, 볼링 세계대회 우승, 중앙회 및 지부·지회 임직원들의 역량강화, 한일시각장애인교류 시작 등과 같은 일들이 새로이 진행되었습니다. 수고한 한시련 모든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2012 임진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해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첫째로 한시련 회장 선출의 직선제로의 정관 개정입니다. 이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직선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간선제나 직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기에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회장이어야만이 회원 모두를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직선제를 이번 2012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고자 합

니다.

둘째, 이번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여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을 최대한 획득하는 일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일은 시각장애인이 국회에 입성하여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실현되지 못한다고 해도 차선으로 정당의 선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지를 넓혀 나가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입니다. 2011년 10억원에 이르렀던 우리 시각스포츠 예산을 정부는 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벌써 2005년과 2006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정부가 우리 시각스포츠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관악갑 무소속 김성식 의원이 이번에도 5억 원의 시각스포츠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김성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의 스포츠 예산이 보다 확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정기적 예산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부 및 지회에 대한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1억5천만원에 불과했던 중도실명인재활지원센터가 2012년에는 3억5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회에 있는 중도실명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더 많은 지회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순회재활사업이 보다 확대되어 지회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시련 임직원들의 역량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실시했던 전국시각장애인 복지관 직원 연수, 한시련 지부 및 지회 직원연수, 해외연수, 한시련 중앙회 직원의 교육훈련 등 한시련 관련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신축입니다. 그 동안 공간이 협소하였고, 붐과 위험이 있어 쾌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었던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75억원의 예산으로 680평의 쾌적한 공간으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불편한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곱째로, 화면해설방송센터 설립입니다. 그 동안 법인사업이면서 제대로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사업을 강화하고자 건물을 매입하여 화면해설방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방송법의 개정으로 인해 화면해설방송물의 제작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스튜디오로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 내에 건물을 매입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덟째, 시각장애인 직업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안마업에 대해서는 대한안마사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지만 그 외의 직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표준사업장, 음향평가사, 콜센터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창출하고, 기존의 직업을 지니고 있는 시각장애인 직업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등 공직에 진출해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지원이나 소프트웨어 지원 등을 확실히 매듭짓겠습니다.

2012년 임진년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웃음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공무원 2급에 해당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반드시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고, 4·11총선에서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12월에 있는 대선에서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시련 내부는 다툼과 반목이 종식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휘두르려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하고, 정의가 넘쳐흐르고 상식이 통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하여야 합니다. 저 자신 또한 보다 겸손히 임진년 한 해를 임하면서 열정을 다해 우리 25만 회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한시련, 우리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2012년,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임진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월 1일 임진년을 맞이하는 아침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최동익 드림

## 장애인계 뉴스

### 1.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된다

지난 12월 29일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에 관한 법률이 여러차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29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포함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에 있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폐지되며, 그 기능을 흡수·확대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립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국가 정책 등을 총괄하게 되며,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장애인 대체자료의 수집·제작·보급 등을 맡게 된다.

대체자료의 제작과 보급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어서 정보접근에 있어 가장 취약한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이번 법안의 통과가 누구보다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국립중앙도서관 설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 2. 하상장복, 시각장애인 전용휴대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하상장애인복지관이 전국의 시각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LG전자지정기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보급사업은 1월 중 시작될 사전 설명회를 통해 신규 휴대폰, 센스리더, 센스뷰 라이트 등을 먼저 선보일 예정이다. 신청자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등급을 받은 시각장애인

#### 2. 지원기기 및 규모 : 총 2,150대

-시각장애인 전용 휴대폰 LG 'LU 2700S' 2,000대

-센스 리더 90대

-센스뷰 라이트 60대

#### 3. 신청기간 : 2012년 1월 16일(월요일) - 2월 29일 (수요일) 소인까지

4. 문의전화 : 02-560-4284(단체접수를 희망하는 기관은 02-560-4285번으로 문의)

#### 5. 신청방법

-우편(등기우편), 메일(압축파일)로 접수 신청

-접수처 : 우편 접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5 하상장애인복지관 정보·보조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앞, 메일 접수는 hasang@onsori.or.kr 로 접수

#### 6. 신청서류

##### 1) 휴대폰 필수서류

① 2011 정보·보조기기 지원신청서 ② 장애인복지카드(단,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함께 제출) 1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 2) 센스 리더, 센스뷰 라이트 필수서류

① 2011 정보·보조기기 지원신청서 ② 장애인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 ③ 활용계획서 각 1부

##### 3) 센스 리더, 센스뷰 라이트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 안마사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1부

② 재학증명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온소리(www.onsori.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가능함

#### 7. 선정기준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기준에 의한 배점을 통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공통사항 : 중증장애인, 활용도 높은 대상자(제출서류와 활용계획서), 하상장애인복지관 지정기탁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함

-센스리더 : 장애정도에서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하며. 센스리더 미보유자는 Basic 버전, 기존 보유자는 Full 버전 지원함

-센스뷰 라이트 : 저시력 시각장애인 우선 지원함

8. 선정 대상자 발표 : 2012년 3월 13일 (화) 14시 온소리 공지사항

9. 유의사항 : 허위로 서류 작성 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3.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달라지는 것들

- 1) 이르면 7월부터 행사자료 등에 '음성변환용 코드' 삽입
- 2) 외국인 장애인도 장애인등록 가능
- 3) 장애수당 지급 관리 강화된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에 관한 일부 법률이 빠르면 올해 7월부터 바뀔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봤다.

#### 1) 이르면 7월부터 행사자료 등에 '음성변환용 코드' 삽입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종 행사자료나 표시물에 음성변환코드가 삽입된다.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그동안 점자로만 표시되던 각종 행사자료나 표시물에 음성변환용 코드도 함께 삽입되는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 2) 외국인 장애인도 장애인등록 가능

외국인과 해외동포의 장애인등록이 허용된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 및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의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29만 명이 넘으며, 결혼이민자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가 장애를 입더라도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왔다.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3년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 3) 장애수당 지급 관리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장애 수당의 지급에 있어 대상자와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관련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만 환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잘못 지급한 경우도 환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애 관련 수당의 환수 시 징수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장애수당을 반환해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를 통해 징수할 수 있으며,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어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분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게 된다.

#### 4.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 -취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받은 강영우 박사, 생애 마지막 편지 보내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가 취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세상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그가 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이메일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강영우 박사는 지난해 12월 초 취장암이 발견됐으며, 의사로부터 길어야 두 달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나이 올해로 69세이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면 혼란스럽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강영우 박사는 작년 크리스마스를 직전에 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메일에서 "50년 전 서울 맹학교 학생이었던 저는 자원봉사자 여대생인 아내를 처음 만났다"며 "10년 뒤 그 예쁜 누나에게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며 비전이 담긴 석자 '석은옥'을 선물하며 프리포즈를 했다"고 아내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으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속에서 우리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두 아들이 미 주류사회의 리더로서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두 아들에 대한 자부심도 나타냈다.

강 박사의 첫째 아들인 강진석 씨는 30만번 이상 집도해 워싱턴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 최고 슈퍼닥터에 뽑힌 유명한 안과의사이며, 둘째 진영 씨는 법률전문지 내셔널리저널이 선정한 40세 미만 최고 법조인 40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법률고문이 되어 아버지에 이어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다.

다음은 강영우 박사가 보낸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 받았습시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 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 박사는 생애 마지막을 아내와 함께 보내겠다고 병원에서 퇴원해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다.

#### 5. 삼성, 시각장애인 안내견 총 149마리 분양

삼성이 1993년 안내견사업을 시작한 이래 안내견 누적분양수가 총 149마리로 늘어났다. 삼성화재의 후원으로 안내견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12월 22일 4마리의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에게 기증했으며, 이로서 삼성이 분양한 안내견의 수는 총 149마리가 되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매년 8~10마리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무상으로 지원해왔으며,



작년에는 총 8마리의 안내견을 기증했다.

2011년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해였다. 지난해 7월 안내견을 데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던 시각장애인에게 한 여성이 욕설을 한 일명 '지하철 무개념녀'사건은 안내견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며, 안내견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 등이 인기를 얻기도 했다.

## 6.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수기에서 시각장애인 조영찬 씨 대상 수상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최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수기 공모전'에서 시각장애인 조영찬 씨와 이필용 씨가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조영찬 씨(시각1급 및 청각5급 중복장애)는 '한소네가 몰고 온 꿈의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한소네를 활용해 대학에서 신학 및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으며, 현재는 졸업 후 미국 헬렌켈러국립센터에서 재활 및 자립생활 프로그램 연수를 위해 영어공부를 하는 등 중증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이필용 씨(시각1급)는 '아버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수기에서, '센스리더'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학업, 음악, TV방송, 라디오 청취가 가능했고, 현재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컴퓨터 방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빛맹학교와 대구영화학교에 센스리더, JAWS, 책마루 및 소리를 빛의 신호와 진동으로 표시해 주는 '케어-데프'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66대를 지원하는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공모전 입상작품 19편은 사례집과 영상물로 제작되어 장애인 시설, 특수학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기획

### 한시련 성명서-"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

50만 시각장애인이 하나 된 마음으로 오매불망 염원하였던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이 마침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지식정보의 취약계층으로 살아야 했던 설움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점자 책 한 권이 없어 손으로 일일이 받아 적어 책을 만들어 공부해야 했던, 자원봉사자의 녹음을 통해 근근이 버티며 공부해야 했던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어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를 제공받아 차별없이 이용해 보는 것이었다.

지난 2006년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아닌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설치에 만족해야 했다.

그동안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는 대체자료의 제작이나 시각장애인용 음성도서 기술표준 마련 등의 성과를 보였지만 시각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같이, 장애인도서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지난 7월 29일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명시한 도서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50만 시각장애인의 뜻을 모아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을 비롯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한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제 우리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및 직제 면에서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을지라도 정부가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소홀히 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지식정보접근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은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50만 시각장애인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및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부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끊임없이 지켜볼 것이다.

## 독자마당

###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하여!

#### 문광만(경기 시흥시)

1991년 포도막염으로 시력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으로 9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각장애인연합회를 알게 되어 점자를 배우면서 저의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저에게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점자를 배우면서 맹학교를 알게 되고 점자를 알아야만 맹학교를 갈 수 있다기에 저는 학창시절 때보다 더 열심히 점자를 공부했습니다. 2009년 입학시험에 합격을 하고 맹학교에서의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계를 전혀 몰랐던 저에게는 맹학교의 생활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마와 침을 배워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도 좋았지만 그동안 앞이 안 보여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던 저에게 시각장애인들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들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맹학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놀랐습니다. 안보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수업을 받으면서 장애와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 교육자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말입니다.

제가 사는 시흥시에서부터 통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흰지팡이로 보행을 하면서 과연 잘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학 전 전철역에서 보행연습을 하면서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학교에 들어가면서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2년 동안 개근을 하여 개근상을 바치겠노라고 말입니다. 이제 학교를 마쳐가는 지금,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흰지팡이를 짚어가며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제 스스로에게도 자긍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아도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맹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 한 가지를 마친 다음 다른 공부를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점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력을 잃고 점자를 배우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간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활의 길을 일찍 찾았다면 저의 삶도 조금이나마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꿈이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중도실명자들에게 재활의 길을 열게 하여 그 사람들이 지금의 저 보다 더 빨리 사회로 다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

그래서 사회복지 석사과정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내가 과연 정안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원도 최선을 다한 덕분에 학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동기들의 도움도 받고 또 맹학교에서의 생활로 자신감을 많이 얻었기에 공부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해 잘 몰랐던 정안인들에게 시각장애를 이해시키고 인식의 변화까지 만들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동기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내어주고 인사를 할 때면 가볍게 손을 잡아주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하여 동기들이 맹학교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지금은 매월 학교에 청소 자원봉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힘들었던 점을 기억해보자면 두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 몸 고생 마음고생을 좀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맹학교의 생활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대학원도 내년 한 학기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이 사회로 다시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또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점자를 배우던 때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점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글씨를 읽었을 때의 희열을 말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던 점자를 익히고 맹학교에서 얻은 자신감 그리고 대학원에서 정안인들과 당당하게 겨루며 공부를 했던 생각을 하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좌절이 제 앞에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장애로 인하여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좌절에 굴복했을 때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좌절을 이기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재활을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이 와도 저는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절을 이기고 희망을 향하여 최선을 다한 경험이 저를 또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2월 16일~12월 31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12월 16일(금요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주최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토론회 발표를 했다.

19일(월요일)에는 인천지부 계양구지회 송년행사와 '방송통신융합정책에 따른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세미나'에 참석했다.

21일(수요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여성회 '누리봄중창단 콘서트'에 자리를 함께 했으며, 다음 날인 22일(목요일)에는 2012년 대선·총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 공약토론회에 참석했다.

23일(금요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회에 참석한데 이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에 관해 협의를 했으며, 같은 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송년회에도 참석했다.

27일(화요일)에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송년회에 연이어 참석했다.

28일(수요일)에는 이룸센터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했으며, 이어 한시련 중앙회 직원송년회에 참석했다.

30일(금요일)에는 한시련 중앙회 증무식을 끝으로 2011년 한해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47)

1)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자랑스런 우리나라' 중 맞는 말은?

-답: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해설: 기본형 '자랑스럽다'의 어간인 '자랑스럽'이 'ㅂ'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이 표준어이고 '자랑스런'은 비표준어이다. 다음의 예시를 참고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예시

- ㄱ. 무거운 가방(맞는 말)/무건 가방(틀린 말)
- ㄴ. 사랑스러운 동생(맞는 말)/사랑스런 동생(틀린 말)
- ㄷ. 날씨가 더워(맞는 말)/날씨가 더(틀린 말)
- ㄹ. 시끄러워!(맞는 말)/시끄러!(틀린 말)

2)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하느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중 맞는 말은?

-답: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해설: '노라고'는 말하는 이의 말로서 '자기 나름대로는 한다고'란 뜻을 표시하며, '느라고'는 '그렇게 하는 일 때문에'란 뜻을 표시한다.

-예시

- ㄱ. 쓰노라고 쓴 게 이 모양이다
- ㄴ. 소설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

3) '거친/거칠은' 중 맞는 것은?

-답: 거친

-해설: 'ㄹ' 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ㄹ'이 줄어들는 것이 원칙이다.

-예시

ㄱ. 하늘을 나는(날다) 비행기

ㄴ. 녹슨(녹슬다) 철로

ㄷ. 햇빛에 그은(그을다) 얼굴

ㄹ. 물에 만(말다) 밥

ㅁ. 작은 그릇에 던(덜다) 밥

-참고: 그러나 '끓은 달걀'을 '곤 달걀'로 줄여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끓은'의 받침 'ㅍ'은 관형형 어미 앞에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옳은 말'이 '온 말'이라고 줄여서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예이다.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제3판 발행본)」(태학사 제공)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